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前 태고종 부원장

미국 어느 주 시골마을에 사는 농부가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그곳에 사는 농부에게도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농사짓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하늘의 해도, 구름도 공중의 바람도 농사철에 맞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말라버렸는가 하면, 어느 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절어버렸다. 그럭저럭 잘 넘겨서 소출이 많았는데도 상인들과의 판매 담판에서 묘한 거래를 하고 하니 손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주말이면 시내에 나가 술도 마시고 놀이도 하고 들어오면서 마음을 푸는 한편 복권을 사는 취미를 붙였다. 미국은 주의 숫자가 많고 인구도 많아서 한 번 당첨 되면 세계를 호화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즐기며 살 수 있는 많은 돈이 걸려있어서 매력 있는 상품이었다.

그런데다가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회에 얹어주는 방식이어서 그 때에 당첨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에 아주 힘든 많은 금액을 받는 복권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복권 추첨에서 이 농부가 당첨되었다. 한 번 건너 뛴 복권이라 2억 달러가 당첨되었다. 요즈음 환율로는 20억 달러도 넘는 그야말로 거금이었다.

당시에는 직접 확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골뜨기가 갑자기 많은 돈을 당첨 받았다고 말해주

"신년 대박을 노리고
복권에 매진하는 이여
선행을 쌓아야 복이 된다"

면 기절 할 수 도 있다고 판단한 위원회에서 한 가지 방편을 마련했다. 농부가 사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잘 설명해서 놀라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부탁을 받은 목사는 "그 정도야 수십 년 설교를 해 온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헌금도 좀 받아내고 말이요."하면서 농부에게 갔다. 그래서 일부러 아닌 듯이 말했다. "친구여, 혹시 2억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면 어찌하겠는가?"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시덥지 않게 생각하여 "나는 복도 없는데 만일 그렇게 당첨되면 한 1억 달러 뚝 떼어서 목사님께 드리지요, 뭘?"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다. 정작 그 말을 들은 목사가 기절해버린 것이다. 농부가 사는 지역이 신을 믿는 종교지역이라 그렇지 자신을 찾아가는 종교인 불교지역이라면 스님이 기절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

느닷없이 복권이야기를 꺼내서 어리둥절했을 지도 모르겠다. 요즈음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분배에 관한 어려움이 겹쳐서 그런지 로또 등 복권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게다가 마음 찾는 불자들까지 줄서서 복권 사는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 산속의 수행자들까지 기웃거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들린다. 재미삼아 한두 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심각한 수준인가보다.

정선의 카지노에까지 들락거린다는 보도가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병증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어 우울한 마음이다. 불자들의 생활철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는 연기(緣起)에 의해 발생하고 열매 맺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느닷없는 횡재를 기대하는 심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과의 도리를 믿고 열심히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재화의 생산분 아니라 분배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몰라서 그렇지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다' 고 현대화된 공양게송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씀하셨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확한 노력과 주위에 선행을 쌓는 바라밀행(婆羅蜜行)을 실천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 가다가 돌아오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 공연한 신경 쓰지를 말고" 유행가 노랫말에도 나온다. 공연한 근심 때문에 인생의 밤길이 멀고 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 바로 그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성도절 소홀히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 음력 12월 8일(양력 1월 8일)은 성도절(成道節)이었다. 성도절은 부처님탄신일 · 열반절 · 출가절과 더불어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의 하나로 손꼽는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는 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기 위한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는다.

성도절은 한마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신 날이다. 성도는 성불득도(成佛得道)의 의미를 줄인 말이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구하시기 위해 출가하신 후 6년 고행 후 보리수나무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해탈과 열반락, 무생법인을 증득하신 것이다.

또한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부처님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괴로움만을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구하신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우주에 꽉 찬 진정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은 당대의 진정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였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부산물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확연히 이천 오백년 전에 깨치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했던 선정(禪定)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것이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낱 마음이 되지 않고 온 마음(專念)이 되게 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자세하게 살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여 전생(前生)도 보고, 업(業)의 작용도 알고, 연기(緣起)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고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도절은 우리 불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 사찰서 성도절 행사가 눈에 띠게 줄어 안타깝다. 연초여서 새해 계획들을 세우느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성도절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새로워진 2014년 조계종 연수교육

조계종 교육 불사는 지난 4년 동안 종단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치적 중 하나다. 현대화되고 표준화된 승가교육과정이 새로이 정립됐고, 학제도 개편됐다. 학인 스님들의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위한 동영상 E-러닝 교육은 일반 스님에게도 확대됐다. 또한 스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교육도 완전히 정착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원은 올해 연수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바로 법계별 교육이다. 종단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교육은 종단 법계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및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박 3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견덕 · 계덕, 승납 5~9년)4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 (중덕 · 정덕, 승납 10~14년)2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 (중덕 · 정덕, 승납 15~19년)2회 △종단 지도자 과정(대덕 · 혜덕, 승납 20~24년)2회 △종단최고위과정(종덕 · 현덕, 승납25~29년)2회 등으로 구성되며 상 ·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고 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해외순례 과정도 기존의 인도, 일본, 중국에 미얀마, 실크로드, 티베트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순례 역시 기존 '경주남산불적답사' '백제불교문화답사' 와 더불어 '폐사지 전문사 이지누 씨의 경주 폐사지 순례' 와 '흥선스님의 경북 불교문화유산을 찾아서' 가 신설됐다.

스님들의 연수 교육은 현대적인 승가상을 구현하고 끊임없는 탁마를 요구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법계별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승납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스님들도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진화하는 승가 교육를 기대한다.

'남북철도' 당위성은

남북 철도 연결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준비위원회(가칭, 기획단장 진관)는 1월 8일 조계종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 를 열고 남북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통일 위해 남북 철도 개설해야



진관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철도 연결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정치를 수행한다면 남한은 일종의 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가 남쪽의 섬을 면하려면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바른 정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간의 경인선을 개통해 운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최초의 철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제의 약탈, 분단 등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철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왔다. 이제는 분단으로 끊어진 남북 철도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7월 31일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를 연결구상안이 대두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칭)한반도평화실천 철도회사를 설립해 남북이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국가의 발전과 통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 철도 개설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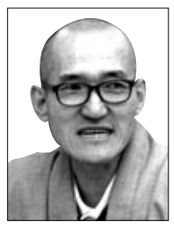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동북아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또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 확장, 일본의 군사주의 경향과 미국의 방조, 중일 갈등의 격화와 한일 관계의 악화로 균형자 촉진자가 부재한 채 갈등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미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되는 가운데 북중 경제 관계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공통 이익 시대의 실현이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국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남한의 철도가 북한과 연결되어 한국 경제의 대륙 진출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북한 철도 체계의 복구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남북철도 연결은 어려운 한국경제에 있어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이며, 좁게는 철도공사와 노조가 흑자기관이 되어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新 실크로드 형성하자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불교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국민이 본시 청정본연의 한 마음임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끊어진 철도가 다시 연결되어 한반도 종단을 달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라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계는 2005년 6 · 15 제 5주년 기념 평양 대통일 축전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故 법장 스님께서 방북 연설에서 남북철도연결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런 예를 들어 현재의 불교계는 지혜를 모아 이 제안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태평양 해양교통로와 유라시아 대륙의 '철의 실크로드' 로 엮을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다.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부산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평화의 자원수송으로 공동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더불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